

물망초

(부제: 나를 잊지 말아주오)

바람의 간지럼에도
구름의 절벽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에도
드리운 안개에 가려 이름 모를 꽃이 되어도

내가 견뎌낸 시간과 아픔
피워낼 그 날 그대에게 정직할 테니,
지지 않고 늘 피어있을 테니,

세상의 미끼 뒤로하고
나를 잊지 말아주오

나는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기에
나는 누군가의 기쁨이고 노래이기에

그대라는 봄이 나를 부르면

정갈하게 피워낸다
깨끗하게 피워낸다

찰나의 흔들림이 가져온 재물은
불 위에 흩뿌려진 눈과 같기에

그대가 나를 돌아볼 때

정갈하게 피어난다
깨끗하게 피어난다